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9월 23일(금)  
---(음력 8월 28일)---  
Пятница  
23 сентября 2022г.  
№ 37 (1200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7일(토) 홉스키시 '마야크(등대)'경기장에서 사할린주 한인디아스포라 미니축구시합이 열렸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 단신

### 사할린의 소피야나티르쉬나, 러시아 기네스북에 오르다

사할린의 스노우보드 선수 소피야나티르쉬나가 러시아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 선수는 스노우보드의 신기록을 세워 세계 최연소 챔피언이 되었다.

소피야는 2021년 스노우보드 평행 대회전 종목에서 우승했다.

코치인 올가와 알렉세이 젤토브 부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 소피야는 스노우보드 월드컵, 세계 선수권대회, 러시아 선수권대회 다수 우승,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등으로 러시아의 스포츠 장인이자 할 만하다.

### 백신 접종 이동차량 유즈노사할린스크 거리로 돌아오다

주민들의 수많은 요청에 따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승리 광장에 백신 접종 이동차량의 활동이 재개된 가운데 이곳에서 코로나 19, 독감, 폐렴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11시 - 18시까지, 휴일 11시 - 17시까지다.

또한 '돔 토르고블리'쇼펜테어와 '시티몰', '스토리자' 부근 백신 접종 이동차량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진료소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8월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은 8431.29루블리

2021년 12월 대비 사할린주의 2022년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4%였다.

2021년 8월과 2022년 8월 연간 대비 사할린주의 물가상승률은 13.47%였다.

식품가격은 한 달 만에 0.23% 올랐고, 2021년 12월에는 11.81%올랐으며, 2021년 8월과 2022년 8월 연간 대비 식품가는 16.96% 올랐다.

비식품 품목 가격은 한 달 만에 0.67% 하락한 데 비해, 2021년 12월에는 11.21%가 상승했다. 이 품목의 가격은 2021년8월과 2022년8월 연간 대비 14.52%가 올랐다.

8월 한 달간 서비스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0.09%였고, 이에 비해 2021년 12월에는 104.06%였다. 2021년 8월과 2022년 8월 연간 대비 가격 상승률은 105.47%이다.

소비자물가 변동과 함께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기초식품세트에는 가장 필수적인 식품 33개 종이 포함돼 있다.

사할린주에서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은 2022년 8월 월평균 8,431.29루블리에 달했다. 이는 2022년 7월 대비 0.6% 하락했으나, 2021년12월 대비 15%가 상승했다.

2022년8월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은 유즈노사할린스크가 8,331.20루블리이고, 코르사코브는 8,075.41루블리, 포로나이스크는 8,338.96루블리, 오후는 9,267.82루블리이다.

## 사할린주 내무국 이주민센터 개관

9월 19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 내무부 연방 국가 단일기업 '여권 및 비자 서비스' 다기능 이주민센터가 개관됐다.

다기능 이주민센터 개관식에 러시아 사할린주 내무국 국장인 아르센 이사굴로브 경찰청장, 러시아 사할린주 내무국 이주민 관리처 처장인 나탈리아 필리포와 경찰 대령, 러시아 내무부 연방 국가 단일기업 '여권 및 비자 서비스'센터의 제1부회장인 세르게이 쿨리코프, 연방 국가 단일기업 '여권 및 비자'센터의 사장 안드레이 홀로질로브, 사할린주 정부 법집행기관 상호협력부 드미트리 메드웨제브 부장, 사할린 국립대 대표들이 참석했다.

"다기능 이주민센터의 개설로 현재 사할린주에 형성되는 이주민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긴밀한 협력 관계로 우리는 사할린주의 이주민 정책 실현 문제에 따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르센 이사굴로브 내무국 국장이 말했다.

이제 외국인들은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센터의 전문가들은 이주민 법률 제정 상담을 제공하고, 특허권 획득을 위한 서류 작성과 준비를 도우며, 임시 거주 허가증 및 영주권, 러시아 연방 시민권 서류 작성, 외국인의 러시아어 국가 능력시험 통과, 러시아어 능력, 러시아어 역사 지식, 러시아 연방법 기초에 대한 능력 증명서 발급을 돕는다.

이주민센터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엘란스키 프로예즈드, 23번지에 위치해 있다.

## 푸틴 대통령, 부분적 군사 동원령 전격 발표

9월21일(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영상 통한 연설에서 부분적 군사 동원령을 발표했다. 병역 징집 대상은 러시아 국민으로서 현재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군 관련 전공자이다.

9월20일(화) 국가 두마는 지난 7월 1차 채택한 형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법안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동원령', '계엄령', '전시'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징집된 병사들은 파견에 앞서 일련의 추가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병력 동원은 9월 21일에 시작됐다. 특수군사작전에 동원된 병사들에게는 복무계약에 따라 급여 지급,

군 신분을 부여한다.

부분적 군 동원령에 대한 법령은 국가 군법에 따라 추가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령이 크렘린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예비군 자원(2천500만명)의 약 1%(30만명 정도) 동원된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로 국방부가 정한 인원과 기간으로 동원에 따른 징집령이 주지사들에게 내려졌다. 군복무 이행에 대한 계약은 군 면제를 제외하고는 부분적 동원이 끝날 때까지 복무를 지속한다.

##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자포로지예주와 헤르손주 러시아 영토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자포로지예주와 헤르손주의 대표들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였던 네 개의 행정자치 지역들 모두가 이제 러시아 연방 소속이 되길 원하고 있다.

사회운동가들이 행정자치지역의 대표들을 찾아가 신속하게 투표를 조직할 것을 요청하면서 9월 19일에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9월 20일에는 인민공화국과 두 개의 주에서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실행하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자포로지예주와 헤르손주에서는 9월 23일(금)에서 9월 27일(화)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4개 지역의 수장들의 주요 요청은 하나다.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지역으로 소속시키는 것이다.

유사한 문제들도 국민투표로 진행한다. 인민공화국들은 국민들에게 러시아 연방에 소속되길 원하는지를 묻고, 주들은 우크라이나 소속에서 벗어나 자체 독립 정부를 구성해 러시아 연방이 되길 원하는지를 묻는다. 행정자치지역들에서 전자투표를 할 계획은 없다.

새고려신문

##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 한인을 대표하는 제8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 임 유리

# '섬지역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힘써보겠다'

지난 9월 9일-11일 제8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 선거가 있었다. 당선된 후보자 중 한 분은 제9선거구에서 우승을 거둔 임 유리 블라디미로위츠(1970년생) 씨다. 임 의원은 의원으로서 처음 발을 내딛으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할린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힘써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그는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뿌리는 사할린에 있다. 1936년에 사할린에 이주한 그의 조부모님은 슬하에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남매들 중 유리의 아버지는 여섯째이다. 그의 아버지는 사할린에서 학교를 마쳐 17세 나이에 레닌그라드로 떠나 대학에 입학해 4학년 때 열애를 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할린에 파견되었는데 그때 아내와 1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그후 3년 있다가 젊은 가족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고, 아들 유리는 그곳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푸쉬킨 시에 있는 레닌 고등 해군 공학사관학교(대학 급)에 입학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해군학교를 졸업했으므로 사실, 복무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사할린을 택했다. 사할린에서 방학도 많이 보냈었고 친척과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할린에서 군복무를 1992년에 시작했는데 경제위기로 1996년에 그가 장교로 있던 군부대가 파산하여 하는 수 없이 예비장교가 되었다. 그 당시 사할린에 남아서 막노동도 해보고, 정비공으로, 엔

지니어로도 일했다. 2000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여러 공장이 있는 한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와 사할린에서 이미 이룬 가족(아내와 3살의 아들)과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다. 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10년간 한 공장의 일반 엔지니어에서부터 대기업의 수석 엔지니어까지 탄탄하게 승진했다. 해군대학에서 공학을 배웠지만 승진하면서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유리는 대학에서 통신으로 두 가지 교육 - 경제학과 법학 -을 받았다.

2010년에 유리는 사할린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곰곰이 생각하고는 사할린으로 가기로 했다. 이유 중 하나는 사할린한인인 유리의 아내가 많이 사할린을 그리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임 유리 씨 자신도 삶을 바꾸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한 회사의 대표로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세레브라니 보르(은빛 숲)' 주택도 짓고 메가팔라스호텔 운영회사 부대표도 맡았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했다.

작년에 비로소 자신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조금씩 일에서 물러서면서 주두마 선거에 나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었고, 의원으로서 많이 활약하고 싶다는 의지로 이 회사들의 대표직, 부대표직을 그만두었다. 다만 설립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들의 전략적 경영에는 참여할 예정이다.

임 유리는 회사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에도 관심이 많



다. 그의 친구 춘 알렉세이, 박 드미트리와 함께 사할린주씨름협회를 설립했다. 씨름협회는 사할린에서 한민족 씨름 유지 및 보급에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유리는 씨름 종목이 여러 지방에 알려지고, 보급하는데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또 하나의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소셜네트워크 커뮤니티 관련 단체인데 지역 리소스 센터와 협의해 지방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소스를 실천하려고 한다.

한때 경영학을 배운 그에게는 소련 시대의 계획 경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앞으로 차세대가 지역 역사와 향토학을 제대로 배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자기 동네, 자기 지역, 자기 도시를 알게 되면 스스로 고향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고, 이로써 조국에 대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생깁니다. 그걸 키우기 위해 지역, 지방교육기관들과 협조해 향토학 수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임 유리의

말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러 기획도 세우고 있고, 그가 의원으로서 관할하는 네벨스크 지역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이미 초등학교를 위한 '향토학 공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그 노트에는 향토의 역사, 지리 및 자연에 대한 가장 간단한 기초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인 친척도 많고, 많은 고모님들, 작은 아버지, 많은 사촌들이 살고 있으며, 아내 또한 사할린동포이고, 친구의 대다수가 한인이며, 자신에게 한인회가 흐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동포사회에도 관심이 생기고, 한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진다."고 임 의원이 말하였다.

최근 2년은 동안은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사할린 한인역사 관련 문제에, 그리고 동포 간 소통에도 관심이 많다. 변호사로서 가끔 상담을 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캠페인 때는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임 후보를 지지했다. 그는 주두마에서 제대로 사할린한인들의 관심사를 대표하고 지키겠다고 표명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임 유리가 차세대 교육, 경제 발전, 주민들이 한층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움이 주는 기획 등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열정이 많고, 의식이 뚜렷하고, 계획이 있어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임 의원은 말을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감정보다는 사실대로 설득하는 면이 있고 전하는 내용을

깊이 아는 눈치였다.

가족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임 유리는 자유 시간을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낚시도 즐기며, 친구들과 사할린 여행도 하길 좋아한다.

그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기 때문이라 본다.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음주 사할린 주두마에서 제8대 의원들의 첫 총회가 열린다고 한다. 그때 누가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것인지 정하게 된다.

임 유리 의원에 따르면 그는 이미 4가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첫 위원회는 경제발전위원회, 두번째 위원회는 세금 및 예산위원회, 세번째는 스포츠·관광 및 청년위원회, 네번째는 국가건설·규제 및 자치위원회다. 사실 임 의원은 사회정책위원회에도 관심이 많아 보인다.

지금까지 경험을 쌓아온 경영자로서, 변호사(특히 노동법 관련)로서, 건설자로서 등 그의 경험들이 이 위원회에서 활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말만 뱉어 놓고 뱉어놓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 유리 의원은 그런 정치인이 아닐 거라 믿는다. 그가 두마에서 정말 노력하고 기획들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런 기대가 어긋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란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 <섬-물고기> 축제 종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8회 <섬-물고기> 미식 축제가 막을 내린 가운데 9월 17일 축제를 마무리하는 축제 프로그램이 '돔 토르고블리' 쇼핑센터 옆 행사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 요리' 경연대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전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가족 요리법에 따라 준비한 연어 요리를 전문 요리사들에게 발표했다.

올해 최우수 가족 요리법은 '돌키'팀의 이리나 파블로와, 소피아 돌린스카야, 이리나 돌린스카야가 소개했다.

시민들은 축제 기간 동안 즉석에서 납치 찜 요리와 사할린 수프를 맛볼 수 있었고, 또한 모든 방문객들에게 과일로 만든 비타민 칵테일을 대접했다.

귀빈으로 초대된 모스크바의 요리사 세르게이 리가이는 행사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 요리로 해물 리조또를 준비했고, 모든 요리사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을 위해 납치, 생선 수프, 리조또 및 칵테일 2000인분을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축제의 주요 상징인 물고기 형태로 연어알을 얹은 빵 조각들을 시민들에게 대접했는데 부찌르부르드 준비에 약 35kg의 식재료가 들어갔다.

축제 주최 측인 소비자 시장 및 식품자원국이 행사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한 오락 행사장, 활동교실, 시댄스 및 보컬 예술단의 공연으로 일련의 오락행사를 펼쳤다. 이외에도 시민들은 사할린 기업들의 생선 제품과 농장 생선, 개인 농산품도 살 수 있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축제의 일환으로 일반 요식업체와 생선 제품 생산업체 4 곳의 탐방이 조성됐다.

<섬-물고기>축제는 8월에 '바다의 선물' 미식 마라톤으로

시작됐다. 올해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특색 요리를 준비하는 '바다의 선물' 미식 마라톤으로 역대급 4천 인분의 판매 기록을 올렸다. 한 달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활동교실, 제품 생산지 견학, 경연 등으로 일련의 다양한 요리 행사가 진행됐다고 시청 홍보부가 전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VIII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Праздничная программа, завершающа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ялась 17 сентября на ярмарочной площадке Дома торговл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Семейная кухня". Накануне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резентовали свои блюда из лосося,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по домашним рецепта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шеф-поварам. Лучший рецепт этого года принадлежит команде "Дольки": Ирине Павловой, Софии Долинской и Ирине Долинской.

Горожане 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сахалинский суп и палтус, томленный на огне, прямо во время фестиваля. Также всех желающих угощали витаминными коктейлями с фруктами. Приглашенный гость, столичный шеф-повар Сергей Лигай, приготовил для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особое блюдо — ризотто с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Всего шеф-повара сделали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рядка 2000 порций палтуса, ухи, ризотто и коктейлей.

Традиционным угощением для горожан стал бутерброд с икрой в форме главного символа фестиваля — рыбы. На его создание ушло порядка 35 кг продукц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 департамент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целую серию увлекательных событий.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работа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мастер-классы, выступали танцевальные и вок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города. Кроме того, горожане 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рыбную продукцию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а также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и садоводов-огородников.

Такж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ись четыре экскурси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производства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стартовал в августе с гастромарафона "Дары моря". В этом году в гастромарафоне "Дары моря", в котором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готовили оригинальные блюда, было продан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зиций — порядка 4 тыс.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ась серия различных кулина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мастер-классов, экскурсий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нкурсов и пр.,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비치발리볼 축제 열려

오는 9월 24-25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처음으로 <사할린의 하늘 아래> 사할린주 비치발리볼 축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특별 행사장 시설이 갖추어진 '스파르타크'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유익한 프로그램과 따뜻한 모래와 최상의 분위기가 배구선수들과 경기 참가자들을 기다린다.

비치발리볼은 세계에서 상당히 대중적인 스포츠이다. 사할린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 경기는 매우 민주적이며, 규칙은 간단하다. 참가하는 각 팀은 2명으로 구성된다. 게다가 역할에 있어 엄격한 배역도 없다. 각 선수가 공격하고, 방어해야 한다."라며 배구 선수들이 경기의 좋은 점을 설명했다.

사할린주에서는 매해 주 선수권 대회와 다른 경기들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할린 배구연맹'이 전 연령대별을 대상으로 '해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연합하기로 했다.

'사할린의 하늘 아래'축제는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사실 축제이기도 하며, 14세 이상의 연령이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다.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어서 모든 수준의 스포츠인들이 승리를 두고 경쟁할 수 있다.

경기는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12시에는 성대한 축제 개막이 열리고, 13시에 경기가 펼쳐진다.

9월25일(일)에는 오전 9시부터 경기가 이어진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8면에 계속)

# 미니축구, 주 한인협회의 우승컵 돌린스크 팀이 차지

지난 17일(토) 홈스쿠시 '마야크(등대)'경기장에서 사할린주 한인디아스포라 미니축구시합이 열렸다. 사할린주 한인협회배 미니축구시합은 전통적으로 매해 개최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유로 최근 3년 만에 경기를 하게 되었다. 2019년 마지막 경기에서 주 한인협회의 우승컵을 홈스쿠팀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번 미니 축구시합 조직은 홈스쿠 한인회에서 담당했다.

이날 경기에는 아나와,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네웰스크, 홈스쿠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1등은 돌린스크, 2등은 홈스쿠, 3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주 한인협회의 우승컵과 메달, 상금을 받았다.

그외에도 '최고의 골키퍼', '최고의 수비수', '최고의 공격수'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을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홈스쿠시 나탈리아 벨로체르콥스카야 부사장, 사할린주 두마 아르좁 크루글리크 의원이 환영하며, 수상자들에게 축하하고 시상하였다.

내년 미니축구시합은 이번에 우승한 돌린스크 시에서 진행한다.

홈스쿠 한인회 이진선 부회장



# 이명수 의원, 사할린동포 동반가족 · 국내유족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19일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년마다 사할린동포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할린동포의 국내 영주귀국시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동반 귀국이 제한된 것을 모든 직계비속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애겠다"며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됐다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법적 근거로 명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으로 사할린동포가 국내로 영주귀국할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비속 중 한 명만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규정으로 사할린동포의 가족이 또다시 뿔뿔이 헤어지게 됐다"며 "사할린동포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하면 그 가족이 국내 영주귀국도 못하고 영주귀국 이후 사망할 경우에도 함께 온 배우자는 지원이 끊겨 임대주택마저 쫓겨나는 신세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유족의 경우, 일제에 의해 가족과 헤어지고 난 뒤 지금까지도 생이별을 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떠한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태조사를 통해 사할린동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사할린동포의 생활 안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며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이 남은 여생동안이라도 편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충남)=데일리한국]



이명수 의원. 사진=데일리한국 DB

# 박진 장관, "재외동포청 설치는 100대 국정과제 외교부 · 동포재단 원팀 대 추진" 주문

9월 15일 제주도 재외동포재단 본부 방문한 자리서 이 같이 당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청 설치가 100대 국정과제로 반영돼 있음을 언급하며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이 긴밀하게 협조해 동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9월 15일 제주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재단 본부를 방문해 업무성과 및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먼저 재외동포재단이 732만 재외동포를 위한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지원 강화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치 등을 위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이 '원팀(one-team)'이 돼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특히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치의 국정과제로 반영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이 긴밀하게 협조해 동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동포사회의 변화와 국정과제 이행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차세대 교육·연수 사업 강화 ▲재외동포사회 권익신장 및 공공외교 활동 지원 강화 등에 관해 보고했다.

박 장관의 이번 재외동포재단 방문은 제주평화포럼 참석차 제주도를 찾으면서 이뤄졌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제주도에 본사를 둔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방문해 제주 본부 시설을 시찰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재외동포신문)

# '제7회 사할린의 밤' 기사를 읽은 후 소감

## '진솔하고, 다정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던 시간들'

2022년 9월 9일자 새고려신문 3면에 실린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김기명 사무총장의 <제 7회 사할린의 밤을 마무리하며>란 기사를 읽고 뭉클한 마음에 간단히 저의 소감을 적으려고 합니다.



이제와 밝히지만, 개인 사정상 참석에 어려움과 고민이 많았으나, 1박 2일 대구에서 보낸 시간들이 안겨준 많은 추억에 '참석하기를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4년째 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 방문할 때마다 더 좋아지는 분위기와 발전된 모습에, 하태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분들이 보여주시는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할린연합회 권경석 회장님을 비롯해 회장단 열다섯 분과 kt 김미경 차장 등 열 일곱 분의 참석자들이 대구시민족통일청년협의회 김기명사무총장님의 진심어리고 따뜻한 인솔하에 첫날 일정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시작하였고, 점심 식사 후 대구 남구청을 방문해 조재구 청장님과의 뜻깊은 만남의 자리에서는 사진촬영과 함께 귀중한 선물까지 받아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유가사를 방문하여 주지스님을 만나 뵈었으며, 특이한 모양의 떡과 과일을 맛보면서 연꽃 만들기 체험도 하였는데, 특히 남성 분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큰 추억이지만, 눈으로 담기에는 벽찬 자연의 선물 앞에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는 참석자 분들의 다양한 모습들도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송해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일행은 TV에서 보던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 순간마다 들쭉날쭉한 모습과 차분한 목소리로 대구의 명소를 설명해 주신 김기명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분에 더욱더 대구를 잘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이튿날 정오쯤에는 전날 미리 도착해 계시던 회장님들께서 전국 여섯 곳에서 버스로 대구까지 도착한 어르신들과 제 지역 회원분들을 행사장으로 모시기 시작했으며, 초청받은 지역 회원분들까지 도착하여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태군 회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해주신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리고, 일전에 어느 어르신께 들었던 "사할린에서 대구의 밤을 진행하였으니 사할린의 밤도 해야지요."라는 말씀을 하시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구에서 전국 25개 지역 영주귀국하신 사할린동포들을 위하여 벌써 일곱 번째 사할린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행사는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되새기며 현재를 사는 후손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 동포들에게는 슬픔과 동시에 웃음을 주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분기별로 전국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사할린연합회)에서 모임을 갖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곤 했지만, 이번 대구의 밤 행사에 참석한 회장님들은 1박 2일 일정 동안 서로 진솔하고, 다정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대구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듯했습니다. 대구를 떠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리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였지만, 대구에서의 좋은 추억과 감동의 시간들은 깊은 여운을 남겨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하태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년째 사할린의 밤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구시 청년분들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해마다 더 발전된 모습과 좋은 분위기를 보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청년협의회 사업이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14일. 파주, 리더이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победила команда Долинска

17 сентября в г.Холмске на стадионе "Маяк" состоялось традиционное первенство по мини-футболу среди команд м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РООСК на Кубок РООСК.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ежегод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прошло после трехгодичного перерыва. В турни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манды город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нива, Корсаков, Невельск, Долинск, Холмск.



В результате упорной борьбы 1-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а команда Долинска, 2-е место у Холмска, коман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3-ем месте. Победители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кубками, медалями и денежными призами от РООСК.



Также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в номинациях «Лучший вратарь», «Лучший защитник» и «Лучший нападающий».

Участников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ице-мэр Холмска Наталья Белоцерковская,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ртем Круглик.

Первенство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местно с Холм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рейце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турнир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примет Долинск.

(Евгения ЛИ)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РООСК)

## РК внедряет инновации в сфере мобильности

В РК готовят платформу для начала полноцен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беспилотных автобусов и коммерческого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ого такси четвертого уровня автономности. Помимо этого, с 2025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летающее такси в рамках концепции городской аэромобильности (UAM). 19 сен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опубликовали дорожную карту развития инновацион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ступает к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правил контроля транс-

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чтобы к концу года коммерциализировать частично беспилотный транспорт третьего уровня автономности. РК станет третьей по счёту страной, которой удалось это сделать, после Японии и Германии. С 2025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беспилотные автобусы, а в 2027 году полностью беспилотный транспорт четвертого уровня автономности. Для этого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власти подготовят критер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трахования беспилот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KBS World

## ОТ КИМЧИ К НУНЧХИ

В прошедшем сентябре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новь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объединивший люд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за приготовлением изв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Это интересное событие заставило вспомнить несколько ярких моментов обращения к образу кимч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искусстве.

У япон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Банана Ёсимото (род. в 1964 году) есть рассказ «Сны о пекинской капусте» (キムチの夢). В семье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происходит разлад. Она и её муж не понимают друг друга, но однажды мужчина, вернувшись с работы, достаёт из сумки «бесформенный сверток оранжевого цвета» – подарок свое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коллеги. И уже в тот же вечер супруги ужинают с кимчи, а запах острой капусты разносится по всему дому.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в жизни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начинается новый этап, она понимает, кто она и так ли важно ей сохранить свой брак. Образ кимчи, вкус этого блюда неотступно преследует молодую женщину даже в ее снах: «А вот мы выбираем кимчи. Кимчи в банках, кимчи в бочках – все свежее, красивое...»

Интересно, что разные отсылки к этому удивительному блюду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можно найти не только в литературе, но и в друг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искусства. Вот, например, в кино.

1. «Всё дело в кимчи» («모두 다 김치») – так называется многосерийный 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а в нем более 100 сюжетов), появившийся в прокате еще в 2014 году. И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этого фильма пытается наладить свою личную жизнь, занявшись бизнесом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имчи. Но если появление кимчи в эпизодах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предсказуемо, то обращение к этому блюду в фильмах, снятых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всегда будет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В 2017 году в Малайзии на экраны вышел фильм «Кимчи для тебя». Если вы

еще не знакомы с этим фильмом, то самое время найти его и посмотреть. И это история не столько о кимчи, а о студенческих годах, о любви и надеждах, о страданиях и забывании от них. Но начинается этот фильм со сделанного главной героиней кимчи – приветственного подарка для президента одной компании.

А в 2019 году во Франции была снята комедия «#Я здесь», главные события которой завязаны на возникшей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любленности повара Стефана в милую кореянку. Желая скорее приблизить настоящую встречу со своей виртуальной подругой, мужчина прилетает в Южную Корею, где ему удается узнать не только вкус кимчи (김치), но и открыть новое для себя слово – «нунчхи» (누נ치); способность предугадывать чувства и ожидания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В фильме «#Я здесь» можно увидеть много разных блюд – и европейских, и азиатских, но кимчи неизменно сопровождает любое, даже самое скромное застолье. А чтобы хорошо получится на фотографии, герои произносят громко и растягивая по слогам всё то же слово «кимчхи», внимательно смотря в камеру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остранством важности и архаичности слова «кимчи» становятся 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ословицы, которые при случае говорят друг другу корейцы: «Начал есть с кимчи в рассоле» (не дождался главного и довольствовался малым), «Ест рассол от кимчи, а усы поглаживает» (придает значимость чему-то небольшому, незаметному), «В неуверенный год готовь кимчи пораньше» (не забывай о запасах).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у каждого из нас существуют свои отсылки к образу кимчи в искусстве (от древней поэзии и живописи к ее современным проявлениям), но все единодушны в том, что это самое вкусное и самое запоминающееся блюд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Автопортрета»

15 сен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Автопортрет».

На новой выставке «Автопортрет» я была рада увидеть уже полюбившиеся работы наше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Дё Сон Ена.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два автопортрета художника 1993 и 2012 гг.



На более ранней работе 33-летний Дё Сон Ен, с развевающейся от ветра шевелюрой, устремлён куда-то в неведомые дали. На ум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приходит лермонтовская строка: «...а он, мятежный просит бури, как будто в бурях есть покой!» Художник пошутил, что придя к возрасту Христа почувствова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аписать автопортрет.

Второй «автопортрет» называется «Портрет художника Олега Подсочина», где изображён друг и сокурсник мастера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училищу, и выглядит скорее групповым портретом, поскольку на стене за спиной друга автор «повесил» портреты его западноевропейских кумиров-живописцев. А собственно автопортрет Дё Сон Ена нашёлся в виде отражения в очках. Невольно приходишь к выводу, что наш любимый Дё Сон Ен только притворяется солидным мэтром, а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 всё тот же молодой бунтарь, хулиган и экспериментатор, талант которого невозможно запереть в тесные рамки обыденного.

Очень хочется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с его участием, жаль, что обещанного три года ждут. Художник поделился, что следующая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только в 2025 году.

Кстати, напрасно Дё Сон Ен посетовал, что выставк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Владивостоком получилась не столь интересной и масштабной,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художников меньше. Выставка замечательная, на острове сокровищ каждый художник – как оригинально огранённый драгоценный камень. Совершенно нет ощущения скуки, может быть потому, что автопортреты представлены во всём многообразии от шаржа до классики.

Так, например, обожаемая мной Наталья Кирихина предстаёт перед зрителем на двух автопортретах, выполненных в технике рисунка карандашом. Она всегда узнаваемая и всегда такая разная! Масло и акрил, живопись и графика, деревянные мебель и скульптура, керамика... Что дальше, Наталья Сергеевна?! Чем ещё будете удивлять?

Елена Бачина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ытается смягчить инфляцию

19 сентя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поставкам овощей, цены на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р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поставки на рынок за счё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резервов корейской капусты,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осенью. В ноябре в РК наступает сезон заготовки кимчи. Поэтому в октябр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подготовить мер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населения необходимыми продукт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мониторинг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сотрудничая с торговыми и другими профиль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Чху Гён Хо отметил сильное инфля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призвав обрабатывающ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уменьшать его за счёт повышени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до конца года продлить срок действия субсидий на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л истечь в сентяб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гнозирует, что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новых отрицательных факторов ситуация 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ми ценами начнёт постепенно улучшаться после октября. Однако среди факторов, которые нельзя выпускать из виду, курс валют, цены на нефть,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е на октябрь повышение тарифов на электричество и газ.

##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церемонии похорон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II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церемонии похорон королевы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Елизаветы II,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19 сентября в Вестминстерском аббатстве в Лондоне. Он был одним из почти пятисот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и правительств, а также монархов, которые съехались в Лондон со всего мира,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королевы, правившей ровно 70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ь «оплакивал смерть королевы, которая на практик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солидарность 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стран. Он разделил горе британского народа от имен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народа РК»,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По окончании церемонии похорон Юн Сок Ёль оставил запись в траурной книге: «Я молюсь за душу покойной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II и выражаю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британской королевской семье и народу.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жить в одну эпоху с королевой, которая стремилась защищать свободу и ми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народ РК всегда будут помнить королеву Елизавету II».

## В РК объявлено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гриппа

16 сентября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объявило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гриппа.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 период с 4 по 10 сентября у 5,1 из каждой тысячи пациентов, посетивших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обнаружены симптомы гриппа. То есть, уже преодолён уровень в 4,9 на тысячу, который указывает на начало актив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гриппа объявлено впервые с 2019 года и гораздо раньше, чем обычно. Как правило, эпидемия гриппа начинается в ноябре-декабре.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не исключают вероятности твиндемии, то есть, одновременной эпи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и сезонного гриппа. В этой связи население призывают делать противогриппозные прививки.

## РК продолжит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хеньян не отвечает на призыв Сеула обсудить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разделё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продолжать усили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19 сентя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Чо Чжун Хун. По его словам, стоит учитывать то, чт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ков лет Север отказывался обсуждать проблему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Однако данный вопрос носит гуманитарный и неотложный характер, поэтому Сеул не прекратит попытки его разрешения,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зиции Пхеньяна. 8 сен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направило официаль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от имени министра Квон Ён Сэ на имя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Единого фронта ЦК ТПК Ли Сон Гвана.

##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25 сен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COEX состои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на тему «Радость новой встречи». Для гостей подготовлена богатая программа, в том числе, концерты, выставки, дегустации традиционных блюд двух стран. На сцене выступят корейские и японские артисты, в том числе, японская группа KIRA-MEKI UNFORENT и корейская TO1. Вход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бесплатный.

(RKI)

## Фестиваль «Чусок — 2022» в Ташкенте

**KoryoTV:** Чусок — это древний семейный праздник, когда большие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собирались вместе, чтобы отметить его в кругу близких и друзей. Вот такими близкими и друзьями стали около 6 тысяч узбекистанцев,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фестиваль Чусок в Ташкент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а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и бизнес-клуб «Кореин»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словами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Виктор Пак, первый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и дружественным связям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Азамат Тошев,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им Хи Санг.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зрител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увидеть песни и танцы в исполнении народного ансамбля «Асадаль», сводного хора г.Ташкента и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детской студии «Анён», ансамбл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танца «Коре», образцового ансамб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Ракс», лауреат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Магдалины Ким, Ирины Нам и её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Мисо», студии спортивно-балльных танце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чемпионки Узбекистана Натальи Тен, ансамбля «Моранбон»,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Наши таланты» К-POP групп «Double U» и «Vertigo mix», заслуженной артистки Узбекистана Галины Шин. Режиссером-постановщиком всей музыкальной части фестиваля Чусок выступила зав.отделом культуры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известная певица и основательница студии «Анён кидс» Виктория Тен.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состоялся также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Советом старейшин АККЦУ.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ильнейшим оказался Илья Мун из Ташкента.

На сцене Дворц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ся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красоты «Miss Koryoin».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стала очаровательная Ксения Цой — студентка 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Ёджу, она же солистка народного ансамбля «Асадаль». Во время фестиваля «Чусок»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салатов, танцев, розыгрыши лотереи, народные игры.

В галерее Дворц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ыставлена экспозиция работ арт-галереи Нурун,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работы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угости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зрителей ароматным пловом,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сайт Корё сарам)

## Страшно не состариться — страшно потерять память

### Сеул, 19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Число пожилых людей, страдающих деменци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росло с 720 000 в 2017 году до 910 000 в этом году, и многие пропадают без вести, когда болезнь овладевает их разумом.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олиц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в 2019 году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2 479 пациентов с деменцией,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7 650 в 2012 году. Рост замедлился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пропаже 8444 человек, причем 97 процентов из них были старше 60 лет.

56-летний житель Кимчхона,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Кенсан, ухаживает за своей 88-летней матерью с тех пор, как 12 лет назад у нее была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а деменция. «Наша семья не может заботиться о ней круглосуточно, но я беспокоюсь, что она может выйти из нашего дома и потеряться», — сказал он.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чтобы найти пропавшего пациента с деменцией, — это вызвать полицию, которая затем начнет поиск на основе физических описаний. Экстренные текстовые сообщения рассылаются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Но оповещения не могут быть отправлены для каждого пропавшего без вести, потому что их слишком много. Фактически,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около 30 000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включая детей и инвалидов, но полиция отправила экстренные текстовые сообщения только в 1 000 случаях.

Профессор Ли Юн Хо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нгук сказал: «Отправка слишком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экстренных текстовых сообщений может усилить общественный стресс и жалобы, поэтому экстренные сообщения отправляются только в случае крайне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ногие семьи заставляют своих пожилы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осить GPS-браслеты, в то время как другие устанавливают дверные замки для слабоумных, для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которых требуются карточки-ключи.

Эксперты говорят,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ледует более активно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ли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ациентов с деменцией. По данным полиции, только около 210 000 или 23 процента всех пациентов с деменцие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отпечатки пальце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азе данных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июль этого года.

## Культовый продукт окончательно уступил место в меню мясу

### Сеул, 19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Рис больше не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продуктом питания южно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впервые едят больше мяса, чем знаковые зерновые.

Ассоциация Hanwoo,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интересы торговли местной говядиной, заявила, что годовое потребление мяс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56,5 килограмма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превысило потребление рис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54,1 килограмма. Ассоциация объявила увеличение более востернизированным рационом питания.

В неурожайные времена 1970 года каждый южнокореец потреблял всего 5,2 килограмма мяса, но в 2000 году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до 31,9 килограмма.

Потребление мяса подскочило до колоссальных 54,3 килограмма в 2020 году.

Потребление говядины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увеличилось примерно в 11 раз с 1,2 килограмма в 1970 году до 13 килограммов в 2020 году. Потребление мяса увеличивалось в среднем на 0,89 килограмма в год с 1970 по 2000 год, но затем подскочило на 1,12 килограмма.

Потребление риса быстро сокращается. В 1970 году каждый южнокореец потреблял до 136,4 килограмма риса, но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резко сократился до 93,6 килограмма в 2000 году и 57,7 килограмма в 2020 году.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южнокорейцы едят меньше половины риса, который они ели 50 лет назад.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завершили ремонт по программе «1000 дворов»

Полностью преобразились три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по улицам Хабаровской, Ленина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ой в райцентре. Приемку каждого из дворов провод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о дворе дома № 28 по улице Красноармейской после полного демонтажа старого покрытия заменили бордюры, обустроили тротуары и ступени с перилами, засеяли газоны, установили скамейки и урны. После укладки нового асфальта организованы парковочные карманы, установлены уличные фонари и резиновое покрытие для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По улице Ленина, 11 наряду с таким же перечнем работ установлены и сушилки для белья. А во дворе домов № 14 и 20 по улице Хабаровской также установлены скамейки, скамейки и урны, качели.

– Макаровский район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в структуре которого работает главный архитектор города, в чьи полномочия, помимо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входят вопро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Это несомненно влияет на качество выполняемых работ. Это можно отметить по таким, казалось бы, незаметным деталям, как обустройство второстепенных дорожек, когда-то вытоптанных людьми, применяемым формам и материалам, общей эстетике проводимых работ,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иктория Доля.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ице-преьера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84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Все работы должны быть завершены до 1 октября.

Помим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апитально дворы ремонтируют и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полностью преобразуют 75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Кроме т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ыполняется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объем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Работы завершены на более чем 950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В рамках текущих работ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не только проезды, но и входные группы, там, где это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регионе отремонтируют 1090 подъездов и входных групп в 369 домах.

## Школьные театры создаются пр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ых школах реализуются 26 программ, посвященных театра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В конце 2022 года их число вырастет в два раза. Всего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в регионе появятся свыше 150 школьных театров.

Сцениче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и небольшие ученические студии получают методическую помощь от остро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В театре кукол уже дали старт первому сезону школьных студий. Артисты и режиссеры станут наставниками для юных покорителей сцены.

– В регионе мы уделяем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ранней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И школьный театр –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ребенка найти своё признание в творческих профессиях. Наша задача – раскрыть талант, дать школьнику понимание многообразия мира. Мы стремимся к тому, чтобы школа стала местом гармон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личности ребенка. Местом, где он может выбрать себе занятие по душе,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Чехов-центр продолжает дава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районах. Арт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А.П. Чехова учат детей тонкостям актер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и сценического боя, приоткрывают тайны закулисы.

– Преподавать актер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детям очень волнующее. Мы распределяем роли так, чтобы дети могли проявить себя рядом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артистами, показать собственное мастерство. Мы стремимся сделать комфор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работы, где ребята смогут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раскованно, пойти на контакт. Мы чувствуем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школьников, – поделилась актриса Чехов-центра Елена Денисов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запланирована серьезная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Ребята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чему научились, на первом областном фестивале школьных театров,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ит вместе мастерские районных школ.

## В 85 дома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ё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них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крыши, фасады, внутридомовые сети водо-, тепло-, электро-, газ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капремонт охватит 139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дрядчики ведут работы активными темпами. Согласно условиям договоров, основной объем сдадут в сентябре-октябре. Полностью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работы завершены в Анивском и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ах.

– 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мпании 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дходят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некоторые объекты сдают раньше сроко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капремонта в

этом году приоритет отдали инженерным сетям,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торых имеет большой процент изношенн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Фонд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Бондаре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троители выполнили капремонт 82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водо-, тепло-, электро- и газоснабжения, а также водоотведения), 36 крыш, 11 фасадов, 4 подвалов. Работы по капремонту на сетях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ы – к началу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они будут готовы к приему теплоносителя.

– В нашем дом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в этом году кровлю. Сделали все быстро. Закончили ремонт пару месяцев назад. Жалоб от соседей не слышал ни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работ, ни после. Качество капремонта покажет предстоящая осень. Подрядчик всегда на связи, поэтому, если вдруг обнаружится какой-то дефект, мы знаем куда обращаться, – рассказал Дмитрий, житель дома №8 по улице Есен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м, за время действия программы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в 1852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обновили 4097 конструктивов на сумму свыше 18 млрд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се подъезды и входные группы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косметических работах. В этом году текущим ремонтом охвачено 1090 подъездов и входных групп в 369 домах. Большая половина работ уже завершена. По реш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на условиях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ыделяются субсиди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осметического ремонт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Гран-пр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творчеств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Лучшей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спозицией была признана «Сила традиций», созданная островными мастерами. Итогом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Мастера и художники России» стали также шесть специальных призов, одно первое место, четыре вторых и одно третье.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с 14 по 18 сентября в Москве и собрал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з 25-т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стровную делегацию представили лучшие мастер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народ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нивхский ансамбль «Ари ла миф» («Земля северного ветра») из Ноглик и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на языках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дная речь».

Конкуренция была серьезная, участники делились секретами мастерства с москвичами и гостями столицы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ри этом посетители стенда могли не просто посмотреть экспонаты, но и в интерактивном режим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астеров погрузиться в процесс изготовления изделий ручной работы.

Юрий Левкун и Федор Мыгун учили гостей резьбе по дереву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Магия дерева». Виктория Азизмамадова и Елена Очан показали азы вышивания бисером во время «Мелодии бисера». Альбина С. Мыгун и Наталья Кельман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традиционную вышивку «Айс тиф» («Золотой стежок»). Ольга Резник поделилась секретами изготовления изделий из необычного материала, вырезая «ожившие» силуэты на рыбьей коже.

– Я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увлекаюс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 декоративной вышивкой и вышивкой бисером, которым занимались мои предки. Попыталась передать красоту цветовой гаммы, личность автора, который приложил свою руку. Ведь то, что мы делаем, мы делаем с душой и любовью, – поделилась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малочисленного народа уильта Виктория Азизмамадова.

Сахалинцы не уступали делегациям из других север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в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 состязании. Участники делегации Елена Очан и Ольга Резник приготовили и угостили гостей экспозиции вкусными и весьма необычными блюдами: муви, приготовленным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рецептам, и уникальным чайным сбором.

По итогам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конкурсов и состязаний, в рамках XV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Мастера и художники России-2022»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или уникальность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альма первенства во многих программах была по праву отдана именно сахалинцам.

Главной победой стал Гран-при выставки, врученный стен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ьными дипломами «За сохра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конкурса «Лучш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аждый в своей номинации отмечены Вадим Левкун, Елена Очан, Ольга Резник, Юлия Хевкина и Александра Бахтина.

Альбина С. Мыгун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Изделия сувенирного промысла». Евгения Окава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Текстиль, войлок, вышивка». В номин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из текстиля»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Надежда Джаббарова. Юрий Левкун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Возрождение

утраченных традиций», а Вадим Левкун – треть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Отметим,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 ежегодное традиционное и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грающее важнейшую роль в жизн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Тематические разделы выставки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делегациям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мыслы, авторские работы художников и мастеров, уникальные дизайнерские наработки одежды, головных уборов, сувениры и поделки,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Кочевье Севера» также делятся творчеством национальные ансамбли всей России.

Поездка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 XVII международную выставку-ярмарку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Мастера и художники России-2022»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центром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 Чемпион мира по киокусинкай провел мастер-класс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Обладатель черного пояса, трех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мира по контактной карате-киокусинкай Хаид Мантаев прибыл на Сахалин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иокусинкай – в школу». Именитый спортсмен и сахалинские тренеры провели для ребят совмест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чтобы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и проработать программу будущих тренировок.

В июне чемпион мира уже приезж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презентовал «Киокусинкай в школу». Теперь проект успешно запущен в десят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Пилотными учебными заведениями ст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СОШ № 3 имени Героя России Сергея Ромашина, СОШ № 4, СОШ № 14 и СОШ № 6, а также школы Корсакова, Троицкого, Красногорска и Чапланова. Школьник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изучать восточное единоборство.

–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роков и не являю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и. Каждый ребенок сможет решить для себя сам, интересно ли это ему или нет, – рассказал Хаид Мантаев.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оект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и на другие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региона. Для этого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поиску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тренеров, а также по составлению списка школ, в которые их можно будет трудоустроить.

Отметим,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с 2021 года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ся в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высоко оценил данную программу и предложил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инициативу на остальные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роме то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Самбо в школу», который успешно функционирует уже более чем в 70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Единоборство, появившеес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и ставшее международным видом спорта, преподают в рамках третьего – вариативного – урока физкультуры.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ступили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Комплексная застройка «Южный парк» появится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Больничная, Горького, Инженерная и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Здесь возведут современные жилые дома, детский сад и многоуровневую гараж-парковку.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обустройство сквера возле реки Еланьки. Сегодня строящийся объект осмотрели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адин.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тся еще один красивый микрорайон с социальными объектами. Это здорово, поскольку наши горожане достойны лучших условий. Проект очень современный,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зеленых зон. Ва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стоянную связь с застройщиком, чтобы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выполнялись в срок. Готовы помогать в решении самых разных задач,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этапа здесь возведут 3 жилых корпуса на более чем 1300 квартир. Максимальная этажность домов – 18. Посещать детский сад смогут 240 малышей. Многоуровневая парковка вместит до 500 автомобилей. Первые 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сдадут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верш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7 году.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составляет 6,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Работы выполняются за счет частных средств.

В ходе осмотра строящегося объект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общался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пании ООО «Сахалин-Дом»,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возведением микрорайона.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инженерно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помни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амбициозную задачу – вводить п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ежегодно. Это около 7 тысяч квартир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Третью часть строящегося жиль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арендное и социально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내, 사할린동포 고향마을 내 '어울더울' 쉼터 개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할린 귀국동포 전용 단지인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치고 '어울더울 고향자 쉼터'를 16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을 주거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천대학교와 함께 추진됐다.

고령자 쉼터의 새로운 이름인 '어울더울'은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후 천천만고 끝에 고국으로 영주 귀국하게 된 사할린 동포들이 삶의 기쁨·슬픔·기억을 공유하며 서로 '어깨를 기대어 함께 울고 웃고, 더 나아가 울림을 주는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범사업으로 LH가 건립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50년 공공임대)이며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다. 2000년 2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약 480 가구 770여명의 사할린 동포 및 동반 가족들이 거주 중이다. 사할린동포들은 1930~1940년대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 섬 내 탄광, 벌목장,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나 독립 후 귀국하지 못하고 국적이 박탈당한 채 난민신세가 됐다.

이들의 국내 이주를 위해 한·일 양국은 1993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동포 이주 전용 단지 건립에 합의했고 2000년 2월부터 사할린동포 1세를 대상으로 영주귀국이 시작돼 고향마을 단지로의 입주가 본격화됐다.

LH는 이들의 국내 거주 희망지역 등을 반영해 현재까지 총 1925가구의 임대주택(국민·영구·50년공임) 주거지원을 시행했으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거급여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단지 내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길 바란다"며 "LH는 앞으로도 사회배려계층과 지역사회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키뉴스)

###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9월 25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오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22년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에 함께 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5일까지이다.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는 전 세계 세종학당의 외국인 우수학습자를 국내로 초청해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연수를 제공하는 행사로,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결선 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 연수에는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 세계 60개국 200여명의 우수학습자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한국어·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말하기·쓰기 대회 지원을 비롯해 외국인 참가자 인솔 및 건강 상태 확인, 의사소통 등 안전한 연수 운영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선발인원은 20명 내외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 증명서, 소정의 활동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국내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일주일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의 전 일정에 참가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학당재단 누리집(<https://www.ksif.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이번 자원봉사는 국내 대학생들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우수한 세종학당 외국인 학습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인 만큼 국내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 재외동포재단,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작품 공모

한글을 배우고 사랑하는 전 세계 한글학교 학생들의 솜씨 자랑 한마당 10월 1일(토)부터 10월 20일(목)까지 스테디코리아(study.korean.net)을 통해 접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을 배우고 사랑하는 전 세계 한글학교 학생을 위해 온라인 시화전 그림과 글, 함께 쓰고 그리기 대회 작품 공모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 세계 한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글 또는 한글 사랑에 대한 자유 주제로 본인이 창작한 시와 손 그림으로 완성한 시화를 스테디코리아(<https://study.korean.net>) 내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총 100편의 작품과 한글학교 3개교(작품최다등록)를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스테디코리아에 전시할 예정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한글학교 학생은 스테디코리아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의 응모 양식을 참고하여 완성된 작품을 10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성곤 이사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한글날 기념 시화전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학생의 참여를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동포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체험담과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글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공모 분야**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과 전통문화계승 그리고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이나 체험담에 관한 내용

**작품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A4 3~10장) 내외  
**영상 5분~10분 내외**

**작품 접수** 2022. 5. 23 (월) ~ 9. 30 (금) 까지

**심사 기준**  
● 작품 - 주제의식과 진솔한 우리말 표현  
● 지도교원상 - 참여도 및 수상작품 배출 여부 등

**수상작 발표** 2022. 10. 14 (금) \*개별통지

**시상 내역**

성인 부문 (10)	대상(1명)	100만원 및 상패
	우수상(9명)	각 30만원 및 상패
청소년 부문 (10)	대상(1명)	50만원 및 상패
	우수상(3명)	각 30만원 및 상패
	장려상(6명)	각 20만원 및 상패
지도교원상	지도교원상(2명)	각 20만원 및 상패

보내실 곳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국방송 한민족방송 (우) 07235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 / email : 972khz@kbs.co.kr

## 재외동포재단 스테디코리아 한글날 기념 시화전

### 그림과 글, 함께 쓰고 그리기 대회

한글을 배우고 사랑하는 전 세계 한글학교 학생들의 솜씨 자랑 한마당

**주제** 한글, 한글사랑에 대한 자유 주제  
**대상** 전 세계 한글학교 학생  
**응모 분야** 시와 그림  
**응모 방법** 스테디코리아(<https://study.korean.net>) 내 게시판을 통해 응모  
**응모 양식** ·도화지 16절~22절, 캔버스 3호~20호 이내  
·수채화, 크레파스, 색연필 등 자율선택  
5~20MB / 해상도 3000픽셀 이상 / JPG, JPGE, PNG 형태(파일명 예시 : 이름\_작품명.jpg)

**일정**  
**접수기간** | 2022.10.01~10.20 **수상자 발표** | 2022.11.10 ~

**시상 내용**

상명	인원(명)	상품
대상	1	상장, 온라인 상품권 \$500
최우수상	3	상장, 온라인 상품권 \$300
우수상	5	상장, 온라인 상품권 \$100
장려상	10	상장, 온라인 상품권 \$50
가작	81	상장, 온라인 상품권 \$10
입선	00	상장
최다참여학교상	3개교	온라인 상품권 \$300

KBS KOREAN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STUDY KOREAN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Фестиваль пляжного волейбола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24-25 сен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первые состоится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пляжного волейбола "Под сахалинским небом".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мет стадион "Спартак", где уже оборудов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площадки. Игроков и болельщиков ждут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теплый песок и отл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Пляжный волейбол пользуется в мире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ахалин в этом плане не исключение. — Эта игра очень демократична, а правила просты. В составе команды всего два человека. Причем нет жесткого деления на амплу. Каждому приходится и нападать, и защищаться, — перечисляют плюсы игры волейболист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ежегодно организуется чемпионат области и другие турниры. На этот раз РОО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олейбола" решила объединить любителей "пляжки"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Фестиваль "Под сахалинским небом" — это не только спорт, но и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могут ст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в возрасте 14 лет и старше.

За счет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ящей из разных номинаций, побороться за победу смогут спортсмены любого уровня: от новичков до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чнутся в 10 часов. В 12 часов состоится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в 13 часов игры продолжатся. 25 сентябр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

должатся с 9 часов,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 Сахалин에서 제 5회 <고래들의 밤> 행사 열려

'부메랑' 클럽이 세계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제 5회 <고래들의 밤> 축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사할린-1' 국제협력조합,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공원, 플라코브 수색구조대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기념일 방문객들을 위해 '부메랑'클럽의 자원봉사자들과 협력자들은 해양 동물들의 삶, 이들의 먹이, 외형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14개의 주제별 코너를 만들었다.

제5회 <고래들의 밤>은 지구촌에서 해양의 기능과 해양의 모든 생물들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공기와 물, 이것 없이는 삶이 불가능하지만 바다 덕에 이것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야생 및 양식 돌고래와 범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바다 영화관'이 운영되어 대단히 성공적으로 활용됐다.

행사 방문객들은 해양 동물들의 연구자 역할도 체험해보고, 드론을 조종해보기도 했다.

일부 동물 애호가들은 해양 동물의 구조대원들과 만남을 갖고, 바다표범이 플라스틱 폐기물에 영긴 것을 풀어주는 방법도 익혔다. 코너 방문객들은 고래와 바다표범의 기원을 이

해하고, 물개와 물범의 차이를 배우며, 해양 동물 새끼들의 먹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 На Сахалине в пятый раз провели "Ночь китов"


Клуб "Бумеранг" в пятый раз провел для любителей природы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праздник "Ночь китов", посвященный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морей.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сорциума "Сахалин-1",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имени Полякова.

Дл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волонтеры и партнеры клуба "Бумеранг" организовали 14 тематических станций о жизни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их питании, внешнем виде, сходствах и различиях.


На пятой "Ночи китов"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роли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в жизни планеты и всех её обитателей. Воздух и вода — это то, без чего невозможна жизнь, но благодаря океану они у нас есть.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работал и пользовался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Морской кинотеатр", в котором зрителям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бодных и несвободных косатках и дельфинах.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смогли примерить на себя роль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и попробовали управлять дронами. Некоторые любители животных общались со спасателями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и разбирались в том, как помочь запутанным в пластике тюленям. Посетители станций постигали происхождение китов и тюленей, учились различать настоящих и ушастых тюленей, узнавали о питании детёнышей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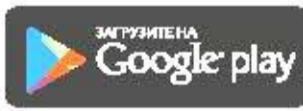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ru](http://bilet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сах.ком](http://билет.сах.ком)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ж. (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